

폐교에 도예·세시풍속 체험공간 '뿌듯'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전승규씨

화순읍에서 동북면을 거쳐 국도 15호선을 타고 북면 방향으로 5분쯤 가다 우회전해 가수리로 접어들면 들머리에 옛 가수분교가 자리하고 있다.

'참살이(웰빙) 지킴이'를 자부하는 전승규(48)씨가 전통식품 문화마을 '토원(土原)'을 꾸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적인 한 천리가 고향인 전씨는 20·30대 시절에 서울과 울산 등지에서 건축일을 하다 이농현상으로 폐교가 된 가수분교를 2001년 매입해 동지를 틀었다. 전씨의 전원생활은 조용하게 산골에 묻혀 쉬는 것이 아니라 풍 등 향토자원과 우리 전통문화를 결합,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추구하는 '귀농'이다.

초창기에는 지리산 산야초 차로 유명한 전문회씨로부터 백초차(百草茶) 등 차 제조법을, 민속학자인 석운 윤병하(1924~2008)선생으로부터 풍물과 효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워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는 계약 재배한 지역 무농약 원료만을 엄선해 청국장·된장·고추장·간장 등 전통 장류를 비롯해 효소·야생차·장아찌 등과 같은 전통식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또 도예와 야생화, 세시풍속 놀이 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관사를 리모델링한 황토집 민

박(3인실·15인실·25인실)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인위적 틀을 지양하는 전통 문화체험 학습공간을 통해 '보고, 즐기고, 배우고, 쉬어가고, 사갈 수 있는' 환경조성에 고심하고 있다. 학교와 학원만을 뺄 때는 어린이들에게 물고기도 잡고, 원두막 토론도 할 수 있는 캠프 등도 구상하고 있다.

전씨는 열악한 지역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본관

관사 리모델링 황토집 민박·공부방 운영

청국장·야생차 등 전통식품 생산·판매

교실 한 칸을 공부방으로 꾸렸다. 인근 군부대 사병이 주 2회씩 교사로 나서 주변마을 30여 명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등을 강의한다. 아직 공부방 한쪽 벽면에는 천정 높이까지 책장이 갖춰져 있으나 읽을 책들이 부족해 뜻있는 이들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본관 뒤편에는 무쇠 솥 4개가 나란히 걸려있다. 장작불을 지펴 콩을 삶아 두부를 만들고 매주를 만드는 곳이다. 산채나물을 이용한 장아찌와 한약초를 이용한 기능성 장류를 개발중이다. 앞으로 농산물을 전시·판매하고 '할머니가 먹던 시골 밥상' 차림을 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이다.

운동장에는 숯대·장승을 비롯해 갖가지 야생화와 허브 '로즈메리'가 심어져 있다. 올해 추가로 학교앞 논 1천300㎡(400여 평)를 임대해 허브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승규 씨는 "팜프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밭은 '마중물'같이 근본을 잃지 않고 우리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www.toowon.com 문의(061-373-6767, 011-9220-1667)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습도·온도 조절 잘하면 냄새 절반 줄일 수 있다

■ 콩류 발효식품 청국장

청국장은 우리의 대표적 콩류 발효식품이다. 콩의 원산지인 만주지역의 고구려 유목민들이 콩을 삶아 말안장 밑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먹는 습관 때문에 생겨났다는 설과 청나라에서 전래돼 청국장(淸國醬)이란 설, 전국장(戰國醬=전쟁 때 간단히 만들어 먹는 장)에서 유래했다는 설 등이 있다.

청국장은 특유의 냄새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냄새는 발효과정에서 온도가 맞지 않아 잡균들이 증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습도와 온도조절, 황토방 관리 등 최적의 발효환경을 만들어주면 냄새를 50%가량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청국장은 '바실러스균'에 의해 실갈이 끈적끈적하면서 우리 몸에 유익한 많은 물질이 만들어진다. 청국장과 유사한 발효식품으로 일본 '나토포(納豆)'가 있다. 청국장은 삶은 콩을 그대로 자연발효 시키지만, '나토포'는 나토포균을 인공적으로 넣어 발효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최근에는 분말과 환(丸)으로도 상품화돼 먹기에 편리해졌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천연염색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참살이 지킴이' 전승규씨가 운동장에 심어진 허브 '로즈메리'를 살펴보고 있다. 본관 입구의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동상이 눈길을 끈다.



광양시 14만 인구 돌파를 축하합니다.

<p>광 양 국 회 의 원 의 원 우 윤 근 광 양 시 시 장 이 성 웅 광 양 경 찰 서 서 장 박 승 주 광 양 교 육 청 교 육 장 박 성 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백 욱 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 사 장 정 이 기 광 양 소 방 서 서 장 이 형 철 광 양 우 체 국 국 장 송 영 수 한 전 광 양 지 점 지 점 장 정 홍 성 K.T 광 양 지 점 지 점 장 송 진 욱</p>	<p>농협중앙회광양시지부 지 부 장 박 진 상 동광양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정 윤 선 전남드래곤즈프로축구단 대표이사 이 건 수 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 위 원 장 서 성 기 광양제철소외주파트너사협회 회 원 사 일 동 주 식 회 사 원 창 대표이사 분 승 표 대한시멘트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춘 규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임 직 원 일 동 주식회사 서회건설 임 직 원 일 동 주식회사 알덱스 임 직 원 일 동</p>	<p>G.S산업개발주식회사 대 표 박 일 태 남경건설주식회사 대 표 남 대 원 성보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경 원 유 일 주 택 대표이사 이 상 윤 관 세 법 인 개 설 관 세 사 이 제 현 주식회사 승일개발 대표이사 장 윤 태 주식회사 광일개발 대표이사 장 호 일 대 원 부 동 산 대 표 백 욱 선 금강공인증개사 대 표 허 정 철 시 장 약 국 대 표 김 재 필</p>
---	---	--